

제1강: 플라톤의 대화편 속의 소크라테스

◆1교시: 플라톤의 『대화편』에 대하여

▲ 플라톤의 다양한 판본(板本)들

지난주까지 겨울학기가 끝났고 오늘부터는 봄학기인데요. 플라톤(Platon, BC 428/427~BC 348)으로 들어갑시다. 박홍규 선생이 플라톤 『대화편』을 많이 분석했습니다. 아직 플라톤 전집은 한국에 없어요.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혼자서 한 건데 일본어 전집을 번역한 겁니다. 그대로 번역한 것이므로 플라톤 전모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긴 한데 정식 번역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번역본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서강사에서 나온 것이 괜찮습니다. 그 총서는 기획한 지 굉장히 오래 되었죠. 십 년도 더 됐는데. 그것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것이 이겁니다. 그리스 철학을 모여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펴낸 겁니다. 이것도 아주 좋아요. 이 두 개를 보면 플라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어본도 하나 있네요. 영어본은 Hamilton과 Cairns 두 사람이 편집한 건데요. 『Plato, collected dialogize』. 이것은 각 사람이 작업한 영어본 중에서 잘 된 것만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각 단락마다 역자(譯者)가 다르지요.

영미권 그리스 학자가 총집결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지요. 원래 플라톤 원문 보면 복잡해서 번역하기가 까다로운데요. 그것을 가능한 한 잘라내어 논지(論旨)만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번역이 되어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많이 주는 책입니다. 상당히 유효한 판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보는 판본은 이겁니다. 흔히 Budi판이라고 하는데요. Budi가 편집한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대화편』 중에서 번역이 잘 된 것만을 모아놓은 시리즈물입니다.

앞에 보면 해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책의 절반이 거의 다 해설입니다. 제가 플라톤을 볼 때는 항상 이것을 보는데요. 이것은 영어판과는 달리 희랍어의 맛을 굉장히 잘 살려서 번역해놓았습니다.

책의 불어 수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불어 실력 갖고는 못 읽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불어입니다. 이것이 늘 제가 보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Loeb Classical library』가 있어요. 체계는 똑같습니다. 대역이 되어 있고 옆에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플라톤만이 아니라 희랍 고전 철학이 거의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고전 총서입니다. 독일어 판본도 좋은 것이 많은데 제가 독일어판은 잘 보지 않습니다.

최근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BC 384~BC 322)를 재편집해서 다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희곡론이 발견되어서 그것을 갖고 재편집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독일어 하는 사람 있으면 인터넷 뒤져 보세요. 나올 겁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일본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죠. みじす서방(書房)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온 것이 아주 고전적인 판본이지요. 아까 말한 대역판의 원본입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이것을 살 것인지 한참 동안 고민했어요.

한 시간 동안. 돈도 돈이지만 그걸 다 들고 오려니까 손이 한 가득이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지요. 최근에 와서 출판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서양 고전을 총망라한 전집이 나왔어요. 일종의 총서이지요.

플라톤만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Cicero, B.C. 106~B.C. 43)부터 시작해서 희랍 철학 거의 전부를 다루었다고요. 저번에 보니까 심지어 제가 모르는 책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보는 편인데도 이런 책도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방대합니다.

확실히 일본어도 옛날 번역본과 다릅니다. 옛날에 나온 것들은 고어투였지요. 그런데 요즘 것은 현대어로 되어 있어서 읽기 쉽더라고요. 하여튼 플라톤은 철학 공부하는 사람은 무조건 봐야 하는 사람이지요.

프로타고라스(Protagoras, BC 485?~BC 414?)는 아까 말한 두 전집에는 아직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여기에는 있더라고요. 범우 문고에서 나온 건데요. 역주(譯註)도 하나도 없고, 정식 번역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데는 좋을 거니까요, 이것을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번 읽어볼까요.

▲ 『대화편』의 특징

(청중 낭독)

52쪽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학문적인 사고를 하려면 정확성과 엄밀성과 체계성이 구비되어야 하며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대상을 분석해보아야 한다고 보는 거죠. 분석이 사물을 인식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분석한다고 합시다. 저 사람은 키가 커, 곱슬머리야, 피부가 하

않다. 그 사람을 분석하는 거죠. 사람 전체를. quality들의 차이, difference를 갖고 분석하는 거지요.

분석한다는 것은 잘 보이지 않고, 섞여 있는 차이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 핸드폰을 분석해 봅시다. 핸드폰은 하나의 덩어리로, 복합체로 구성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해부해서 부품을 분다고 할 때, 우리 눈에 띄지 않고 얽혀 있던 것이 보이게 되죠. 부품 하나하나가 공간 속에서 분할되게 되지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지요. 이런 외연(外延)적인, 공간에서 썩 퍼는 겁니다. 그것이 보통 분석하는 것이죠. 생물학으로 말하는 해부학이죠. 언어학도 마찬가지죠. 언어를 다 분석하지요. 여기서부터는 주어고 여기는 동사고 목적어고. 한 덩어리로 묶여 있는 것을 분석하는 거죠.

분석한다는 것은 차이점을, 외연에다가 다 펼쳐놓는 거죠, 외연 공간에다가 펼쳐놓을 때 비로소 그 차이가 우리 눈앞에 가시화 되는 거죠.

분석한다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플라톤의 『대화편』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학문이란 이렇게 분석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보통인데 반해 플라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른바 어떤 고유명사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야기를 하죠. 분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 면에서 플라톤의 이 책은 아주 unique한 책이고, dialog로 썼다는 점에서 특이한 책이죠.

희랍 문화사를 글쓰기 양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희랍문화사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서사시죠. 장중하고 집단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고. 상당히 긴 시간대를 논하고 있죠. 호메로스의 서사시(敍事詩), epic이 그렇고.

그 다음이 서정시(敍情詩)죠. lyric, 서정시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내면을 표출하는 거죠, 집단적이기 보다는 개인적이고 이지적이기 보다는 감정적이고. 서정시의 등장이라는 것은 희랍 문명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사포(Sappho, ?~?)의 시가 유명하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산문이죠. prose. 산문이 등장함으로써 이론적인 지성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과학과 철학이 등장하게 되죠. 서사시를 구사하는 입장과 서정시, 산문을 구사하는 입장은 다른 거죠. 글쓰기 양식 자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 drama죠. drama 형식은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나오죠. 자세하게 연구해 보아야 하겠지만 주로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뒤에 그 전쟁에서의 벽찬 경험을 극화(劇化)하게 되는 거죠.

drama라는 말은 evenr죠. 사건 또는 stituation, 상황. 이런 것을 뜻하는데요. 극적이죠. 페

르시아 전쟁을 dramatic하게 이겼잖아요. 그래서 drama라고 하는 거죠. drama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dialog죠. dialog는 dia-logos죠. 어떤 책에 보니까 두 사람이 얘기 하니까 dialog라고 하던데, 그건 좀 엉터리고요. dia-logos죠.

dia라는 것은 against죠. 말과 말이 부딪치는 거죠. drama에서는 말과 말이 부딪치죠. 아가멤논이 트로이전쟁 끝나고 카산드라를 데리고 오죠. 그 부인이 욕을 하지요. drama란 이렇게 부딪치는 맛이 있죠. 그 drama 형식과 『대화편』 형식이 같습니다. 일종의 철학적 drama지요.

만나서 logos가 부딪치는 거죠.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logos와 logos가 부딪치는 거죠.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1616), 괴테(Johann Wolfgang Goethe, 1749~1832)도 다 마찬가지죠. 참 재미있는 것은 플라톤의 『대화편』은 액자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 교실이라는 하나의 공간 안에 저 세계가 따로 또 있는 거죠. 액자형식이 최초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대화편』입니다. 드라마가 있었던 것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전해 주는 거죠.

A와 B가 만납니다. 사실 이것은 서론이고 A가 B에게 과거에 있었던 드라마를 얘기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맨 끝에서 A,B가 다시 나옵니다. 그러므로 서론은 현실 공간입니다. 전해주는 내용이 액자 속의 내용이지요.

<닥터 지바고> 보면 그렇잖아요. 지바고가 자기 삼촌을 찾아가서 얘기를 듣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다시 그 장면이 나오지요. 그런 것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형식이 이야기꾼들의 형식이죠.

옛날 시골에는 이야기꾼이 옵니다. 마당에 멍석 깔고 사람들에게 얘기해주는데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옛날 시골에는 극단 개념이 따로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영화 보던 기억이 나는데요. 필름을 갖고 와서 틀어줍니다. 보통 물레방앗간에 서 틀어주지요. 동네에 와서 얘기하는 거죠. 얘기해주는 사람은 일단 기억력이 엄청 좋아야지요. 옛날에는 문서라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용을 다 외우는 겁니다. 판소리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외워서 배우고 또 다시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플라톤의 『대화편』도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읽다 보면 이것이 액자 밖의 얘기인지 안의 얘기인지 헷갈리기도 하지요.

플라톤 자신이 드라마를 쓰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철학을 하면서 그것을 다 불태웠다는 설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그 얘기들의 배경은 주로 시장이나 아고라지요. 아니면 프로디코스라는 부잣집 사람의 집이

죠. 옛날 부자들은 사람들 불러서 잔치하는 게 낙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마찬가지로
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별로 없지만요. 예컨대 어느 유지가 돈이 많아서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연다는 등, 그런 것이 없지요. 부른다고 해도 안 올 겁니다, 아마도. 밥 먹으려고 왜 거기까
지 가냐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배가 고프니까 갔죠. 저도 옛날에는 집에 거지가 와줍니다.
그럼 할머니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도 밥을 문간방에 차려줘서 먹고 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옛날에는 동네 유지의 낙이 잔치였습니다. 엄청 큰 명석을 깔고 천막도 치고 술도
마시고 하죠. 그리고 판소리 같은 것도 하고요. 그 풍경과 똑같습니다. 그 풍경이 없어진 지
얼마 안 됩니다. 지금도 찾아보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다 소멸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온 풍경이 뭐냐 하면 이것과는 관계없는 여담입니다만 텔레비전입니다. 옛날에
는 텔레비전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텔레비전 있는 사람 집에 다 모이는 겁니다. 모기가
막 물잖아요. 그래서 모기향을 피우고 예를 들어 김일의 레슬링을 보고 그랬죠.

그걸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먹여주고 얘기해 보라고 하는 거죠. 한국 사람
과 그리스 사람들의 차이는 있죠. 한국 사람들은 대화 하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하죠. 춤을
춘다거나 노래를 부른다거나 하죠.

반면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답니까. 실제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길
을 가다가도 한참 동안 서서 얘기한답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대화편』 이지
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고전문학에서 대화체 문헌이 있나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있어봤자 맹자 정도겠죠. 제자들이 적어놓은 게 있긴 한데, 굳이 대
화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죠.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엔 희곡은 약합니다. 시나 소설은 강한
데 희곡은 약합니다. 오늘날 기껏해야 드라마 정도겠지요. 제대로 된 드라마는 전무했다고
봐도 좋죠.

아무튼 희랍 사람들은 특이한 게 이렇게 대화를 좋아하는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고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항상 플라톤의 『대화편』의 문제는,
도대체 왜 본인은 나오지 않느냐는 거죠.

기록을 한 것인지, 구성을 한 것인지, 어디까지가 기록이고, 자신이 첨가한 것인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모든 것을 동원해 읽어낸다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이후
의 학문에서 대화편이 많이 나오긴 하죠.

키케로도 썼죠. 갈릴레오(Galileo Galilei, 1564~1642)도 썼고요. 심지어 포포라는 현대 철
학자도 썼습니다. 성공한 예가 없어요. 다 논문 식이고요. 유일하게 이 사람의 『대화편』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의 『대화편』의 외적인 것을 빼고 내용만을 문제 삼을 것
이냐, 이벤트 자체에 의미를 두느냐.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요.

▲ 분과과학과 철학

그리고 54쪽에 보면 분과과학과 철학의 얘기가 나오죠. 분과과학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부분을 object, 대상으로 삼죠. 그런데 철학이라는 것은 object가 굉장히 불분명하죠. 예컨대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의 『순수이성비판』을 읽을 때, 인식론(認識論)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이 사람이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아는 것 자체가 어렵죠. 그런데 분과과학이라는 것은 대상이 명확하죠.

물리학이면 물리학, 생물학이면 생물학, 경제학이면 경제학. 이런 식으로. 그런데 철학은 이런 object라는 게 없죠. 있다면 world, 세계 그 자체죠. ontology의 대상이 뭐냐고 굳이 묻는다면 세계 그 자체가 대상이죠.

그래서 분과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것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다르죠. 그렇다면 분과과학과 철학의 관계가 무엇이냐는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어떤 일치된 견해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과거에는 분과과학이라는 것은 철학의 틀 내에 있는 거였습니다. 철학이라는 전체의 틀이 있고, 논리학 형이상학 자연철학 윤리학 정치학 등이 있는 거였죠. 그런데 근대로 들어오면서 그 체계가 다 붕괴되기 시작하죠.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체계가 다 붕괴되기 시작하죠.

각 분과과학이 자기 자신의 고유한 영역과 고유한 개념, 고유한 원리, 고유한 정의 등을 갖고 뿔뿔이 흩어지죠. 철학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철학이라는 개념도 새롭게 규정되죠.

제가 보기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합으로써 보는 입장이죠. 철학이라는 것은 이 세계를 부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종합해서 전체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 관점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철학이라는 것은 메타 학문이라는 겁니다. 1+1은 왜 2인가를 따진다든가. 시간과 공간, 우연과 필연을 분석한다거나. 이런 식이죠. 아니면 과학과 예술에서의 상상력, 직관의 문제를 따진다거나, 이런 식이죠. 또 하나의 길이죠.

세 번째는 철학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식은 과학이 하는 거죠. 옛날에는 철학자가 모든 것을 했지만, 오늘날 그것은 과학의 문제이고. 철학은 실천의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식의 대상이 아닌 것. 지식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존의 문제, 종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는 의견이 세 번째입니다.

물론 이 세 관점이 첨예하게 갈라지는 것은 아니고 복잡하게 얽혀 있지요. 다 연관이 되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에 이 세 갈래가 큰 흐름입니다. 근대에 구축된 큰 흐름입니다.

가장 뛰어난 철학은 물론 그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여러 학문을 종합적으로 보면서도, 그 종합이란 것이 그저 그것들을 다 더해놓은 것이 아니라 메타적인 지평에서 알맹이를 종합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실천적인 문제에 답을 주는 것. 그것이 idea라는 의미에서의 철학이겠죠.

하여튼 여기서 박흥규 선생이 갖고 있는 철학에 대한 가치관은 메타적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안 했지만. 분 과학의 테두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reality로 나아가는 것.

상당히 이 양반의 철학은 이론적이고요. 실천보다는 이론에 가깝고요, 메타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쪽이죠. 그런데 그런 작업이란 누구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작업을 혼자 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죠.

▲ 변증법, 문답법, 그리고 대화

그래서 등장하는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변증법(辨證法), 문답법(問答法)이죠. 54쪽 맨 아래 보시면, 제논(Zenon, BC 495경~ BC 430경)과 소크라테스의 무지가 야기한 실제의 인식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그 나름대로 계승한다. 그런 말이 나오죠.

이것이 무슨 말이나 하면요. 보통 제논을 변증법의 시조로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 하면 제논은 두 가지의 상반된 견해를 양립시키죠. 운동이 존재한다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 우리의 지각으로 보면 아킬레우스의 거북이를 추월하죠. 그런데 제논 자신의 논리로 보면 추월을 못하죠.

눈으로 보면 분명 아킬레우스가 제논을 추월하죠. 이 두 개의 dox가 평행한 것, 그래서 paradox입니다. 역설(逆說)이죠. 이런 구도가 이른바 변증법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제논의 한계는 이 두 개를 오로지 평행으로만 봤을 뿐, 교차하면서 무엇이 만들어진다고는 보지 않은 거죠.

일종의 부정이죠. negative한 방식의 구조죠. 소크라테스도 어느 정도는 이것을 이어받고는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문답법이고 더 나아가면 변증법이 되는 거죠. dialectic이 되는 거죠.

진리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입장을 비판하고. 진리라는 것은 반드시 여러 독사가 부딪치고 logos, 과정을 거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55쪽 7번째 줄 봅시다. 사건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실제의 나머지 부분으로서의 통로가 들어있는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이 바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넘어서 실제의 나머지 부분으로 들어가는, 대화(對話)라는 거죠.

이것을 현대식으로 해석하자면, 타인이 나의 가능 세계라고 볼 수 있죠. 타인은 possible world, 나의 가능 세계죠. 잘 보면 그런 함축이 들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을 때는 이 두 사람의 세계가 겹치죠. 여기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는 이 이벤트 안에서 겹쳐있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수업이 끝나서 한 사람은 맥주를 마시러 가고 한 사람을 야구를 보러 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야구의 세계를 지각하는 것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맥주의 세계를 지각하는 거죠. 맥주를 지각하는 사람은 야구를 지각할 수 없고 야구를 지각하는 사람은 맥주를 지각할 수 없죠.

나에게서 현실세계가 타인에게서 가능세계인거죠. 나에게서 actual world가 타인에게서 possible world인 거죠. 라이프니츠(Leibniz, Gottfried Wilhelm, 1646~1716)의 이런 생각을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가 받아서 하지요. 나의 가능세계로서의 타인이라는 것.

그런 가능세계들이 모여서 가능한 것이 현실로 화하는 장소가 대화죠. 두 사람이 모이면 각 사람이 가진 세계가 서로 만나면서 두 세계가 교차하면서 더 넓은 세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대화고, 그래서 플라톤의 대화란 회합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모여서 각각의 세계를 펼치는 겁니다.

그것들이 공존하는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을 플라톤 자신이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실제의 만남을 얼마나 충분히 재현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디까지가 플라톤의 각색이나.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플라톤 말고 역사적인 사건을 고유명사로 쓴 것은 성서(聖書)죠. 성서의 포인트는 구제, 실제의 구제인데요. 플라톤의 대화편은 실제의 진상(眞相)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말하죠.

◆2교시: 소크라테스와 프로타고라스

▲ 소피스트(Sophist)들은 누구인가

(청중 낭독)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 BC 460경~BC 377)가 소크라테스에게 와서 프로타고라스가 아

테네에 왔으니 빨리 가자고 합니다. 이 당시에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의 성격은, 요새로 말하면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와 비슷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직 해도 안 뺐는데 찾아가자고 하는 게 그렇지요. 우리로선 상상이 안 되지요. 학생이 새벽 4시에 집에 찾아온다. 굉장히 웃기죠. 그런데 이때 소피스트들은 엄청난 인기인들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인기인이었냐 하면 아테네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정치에서의 웅변이나, 법정에서의 변론 같은 rhetoric입니다. 그것이 최대의 관심사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전까지는 전쟁시기였지만 이 시대는 평화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아테네가 전 세계의 부(富)가 모이는, 지금으로 하면 파리나 뉴욕 같은 곳이죠. 그래서 재능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로 오죠. 그 재능 있는 사람들 중에 특히 각광을 받은 것이 소피스트들이고, 그들은 벌어도 일정한 게 아니지요. 샐러리맨이 아닙니다. 어떤 기관에 들어가서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로 말하면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자신들의 능력에 따라 편차가 있듯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피스트들을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켈변론자(詭辯論者)라는 용어는 플라톤의 편향이 들어가서 좀 지나치고요.

무조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그런 면이 있기는 하지만요. 학자라고 하기도 그렇고. 정확히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일종의 담론 인기인이지요. 프로타고라스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테네 바깥에서 온 사람들이지요. 아테네가 고향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 간의 알력의 중요한 원인도 이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가 자기 고향이었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 미국, 중국 등의 나라에서, 세계의 지식인들이 서울에 몰려왔다고 합시다. 그럼 서울 토박이들 입장과 서울 가서 한 건 하겠다고 온 사람들의 입장이 같을 수가 없지요. 그런 것도 무시할 수 없는 background죠.

그리고 옛날 지식인들은 전부 다 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사들도 편력의입니다. 화타 같은 사람도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맹자, 공자도 그렇고요. 옛날 지식인들은 이렇게 대개 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왕정이 확고해지고 천하가 통일되면 지식인이 관료가 됩니다. 그렇게 확고한 정치체제가 구축이 됐을 때의 지식인과 편력 지식인들은 다르지요. 이때의 지식인도 두 가지지요.

궁정에 가서 관료를 하거나 지방에 파견되거나. 이 존재 양태와 그 이전, 그리스나 제자백

가는 특이한 경우지요. 이것은 아직 그러한 시스템이 없는 거죠. 전부 다 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소피스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데 프로타고라스가 왔다고 하니깐 난리가 난 거죠. 적어도 지식계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새벽 같이 가자고 하니깐 소크라테스가 히포크라테스에게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은 진짜 지식인이 아니고 소피스트다. 이 사람은 지식 장사꾼이다”라고 폄하하면서 영혼을 그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훈계를 합니다.

현대 감각으로 말하면 그렇게 좋은 충고가 아니죠. 아직 누구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 만나면 안 돼”라며 이미지를 형성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별로 좋은 충고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그런 맥락 속에서 등장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게, 그 말을 한 군데로 모아 동일한 대상에 관해서 동시에 동일한 관점에서 모순에 빠지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무지(無知)를 자각하도록 한다.

그 말을 한 군데로 모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한 군데로 모으지 않으면 무책임해 지겠지요. 인터넷 공간의 경우가 그렇지요. 막 멋대로 얘기하고 돌아다녀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지요. 여기서 한 얘기, 저기서 한 얘기가 모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그 사람이 인터넷 공간에서 한 얘기들은 다 모아다가 한 페이지에 정리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무책임하게 얘기하고 다녔는지가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의 소피스트적인, 그때그때의 승리만을 목표로 하는, 어떻게 그 순간에만 rhetoric으로 상대방을 누르느냐의 방식이 지금의 네티즌들의 방식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욕도 하고 아무 얘기나 하고 다니죠. 아주 무책임하게.

그 다음에 신문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가 기사를 하나 썼어요. 그런데 하루만 지나도 아무도 읽지 않겠죠. 얼마나 책임감이 떨어지겠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쓴 걸 다 모아 보세요. 얼마나 엉터리인지가 다 드러나겠죠.

말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순에 빠지게 함으로써 당신이 지금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지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게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죠.

그 다음에 그 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영혼의 돌봄. 당신의 오른손을 보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죠. 영혼을 돌본다는 것. 소크라테스의 생각의 핵심은 영혼, Psyche입니다. 그것이 주춧돌이고 이 사람의 영혼론을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보느냐가 이 사람 이론의 중요한 요소이죠.

영혼을 돌보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은, 행동을 할 적에 알고 하라는 거죠. 자기 주관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소크라테스의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소피스트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 소피스트들에 대한 세 가지 비판과 프로타고라스의 반론

(청중 낭독)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플라톤의 이해는 「소피스테스」란 편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죠. 소피스트란 굉장히 여러 종류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전부 하나로 묶어서 일괄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에는 사실 무리가 있고.

그래서 플라톤 『대화편』에도 모순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 나타난 것만 보면, 프로타고라스 같은 소피스트들로부터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아마추어이자 자유인으로 배우는 교양이 아니라 일종의 직업 교육과 다를 바가 없는 교육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피스트의 가르침은 얼핏 보기에 교양과목 같지만, 사실은 이리이러한 순간에 이렇게 하면 된다는 식의 rhetoric만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한 인간의 영혼을 전체적으로 다듬어주는 교양과목과는 큰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양과목이라는 것은 전문과목과 달리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것을 상업적으로, 부를 축적하기 위해 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비판이죠. 또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정착민이 아니다 보니까, 한 곳에서 정체가 들통 나면 도망가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프로타고라스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죠. 첫째는 자기는 단순한 직업 교육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교육, 교양을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옛날에도 소피스트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기술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오심을 불러 일으킬까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맥락입니다. 하나는 기존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상식을 이 사람들이 깨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알력 같은 거죠. 그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 뛰어난 사람에 대한 질투심. 한 사람이 좀 뛰어나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 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것(욕망)을 가렸다는 거죠.

그러나 자신은 떳떳하게 나서서, 예를 들어 “나는 교육가다”라고 얘기하며 만인(萬人)에게 공개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공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아주 떳떳하고 뿌듯한 것으로 제시하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예컨대 천문학이나 기하학,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가르치는 것은 arete라는 겁니다.

▲ arete란 무엇인가

이것이 가장 핵심이죠.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들의 부딪침 중 결정적인 것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인식입니다. 프르타고라스적인 상대주의와 소크라테스적인 논박. 두 번째는 arete의 문제입니다. 보통 덕(德)이라고 많이 번역하죠.

박홍규는 이것을 유능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번역하기 나름인데요. 번역하기 참 어려워서 이것은 그냥 arete 라고 할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빼어남, 뛰어난, 덕, 유능함 등. 그러니까 자기는 기존의 사람들처럼 부분적인 기술이나 전문적인 지식이나, 천문학·기하학 같은 비현실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덕, 가정과 국가에 대한 arete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멋지게 소피스트라는 존재에 대해 얘기합니다. 교육자고, 사람들의 편견을 뚫고 가시적으로 나온 사람이고, 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제시합니다.

전쟁의 시대는 사람들의 뛰어난, 빼어남에 대해 의견이 거의 일치합니다. 잘 싸우는 사람이죠. 아킬레우스(Achilleus) 같은 사람. 그러나 전쟁의 시대가 끝나고 평화가 오면 빼어난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죠.

요새 식으로 말하면 문화 분야들 사이에 일종의 담론 헤게모니 투쟁이 벌어져요. 플라톤 철학은 그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담론을 둘러싼 헤게모니 투쟁. 예를 들어서 문학이 중요하다, 과학이 중요하다, 수학이 중요하다, 사회과학이 중요하다 등. 담론의 사이에서 헤게모니 투쟁이 벌어지죠.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소피스트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냐’는 물음에 정확한 대답을 해야죠. 그래야 소피스트들 자신도 정당화가 되고 돈도 많이 벌겠지요. 그것이 바로 arete라고 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구조화되어 있죠.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고, 직업 훈련소가 있고. 그 논쟁이 덜하지요. 왜? 이미 그 구조가 다 정착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때는 특별한 기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때였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화두가 뭐냐면, 덕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아주 결정적인 문제죠. 덕이란 타고 나는 것이냐. 아님 가르칠 수 있는 것이냐. 소피스트들로서는 당연히 가르칠 수 있다고 봐야지요. 그게 자기들 직업이니까요. 그렇잖아요.

덕이라는 것은, arete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처럼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혁명적인 생각이죠.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는 거기까지는 같이 갑니다. 나중에 갈라지죠. 그래서 arete 문제는 참 중요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할 대목이죠.

다음 시간에 한 시간 더 해야겠네요. 지금까지는 거의 서론적인 얘기고 중요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지요. 엄청 복잡하고 헛갈리니까 잘 읽어주세요.